

Dubai유, 태풍에 밀려 34.6달러

석유공사, 멕시코만 생산시설 일부 가동중지 ... WTI는 44.35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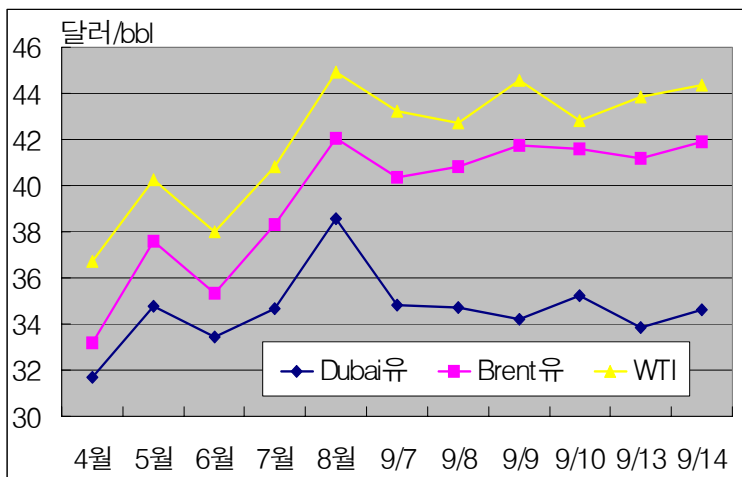
미국 멕시코만의 허리케인 영향과 미국 주간 석유재고 감소 예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9월14일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중동산 Dubai유는 전날보다 0.77달러 오른 배럴당 34.60달러를, 북해산 Brent는 0.72달러 상승한 41.91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도 배럴당 44.35달러로 0.52달러 올랐다.

선물시장에서는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WTI 10월물과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의 Brent유가 각각 0.52달러, 0.67달러 상승한 44.39달러, 41.73달러에 장을 마쳤다.

국제유가 추이(2004)



석유공사는 “허리케인 이반이 미국 멕시코만을 향해 계속 다가오면서 석유 생산시설 가동이 일부 중단됐고 미국의 주간 석유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화학저널 2004/09/16>